朝鮮日報

論說

日本勞働階級과 英國總同盟罷業

一

炭坑主는 勞働時間을 延長하며 賃金을 低減하며 賃金率을 地方的으로 作定하자고 主張하는데 對하야 炭坑夫는 斷然히 反抗하게 되엿다 그리하야 百十七萬의 炭坑夫가 四月三十日로부터 五月一日에 오는 夜半부터 罷業을 開始하엿고 이 炭坑夫의 罷業에 同情하여 그 目的을 助成케 하는 意味로 英國勞働組合聯盟總評議會에서는 四日로부터 全國的으로 同盟罷業을 斷行하기를 決議하엿는데 그 決議에 贊成하기는 三百六十五萬三千五百二十七人에 達하엿고 反對하기는 겨우 四萬九千九百十一人이엿섯다

二

그리하야 豫定과 가티 四日零時부터 全國的總同盟罷業이 開始되엿는데 그에 參加한 者가 英國全炭坑夫百十七萬, 鐵道從業員四十四萬六千, 機械業其他勞働組合員四十三萬, 製鐵金屬組合員十五萬一千, 印刷業從業員十五萬九千, 建築業其他組合員三十五萬五千, 造船勞働組合員十三萬二千, 其他小組合員四十萬이니 總計三百六十五萬五千餘名에 達하엿다 이와 가튼 大規模의 罷業은 英國에 잇서서도 그 類例가 업섯다 이와 가티 하야 지금 全英國은 一千九百十四年의 世界大戰이 始作되던 때와 가티 混亂狀態에 빠지게 되엿다 英國의 經濟界가 發達됨을 보고 世界의 勞働階級은 英國의 變遷에 對하야 注目不已하고 잇섯스나 도로혀 變動은 露西亞에서 생기게 되엿다 그러나 再昨年以來로 英國勞働者와 露西亞勞働者와의 사이에는 매우 接近하는 徵候가 顯著하게 되여 왓섯다

三

그동안에 兩國勞働者의 接近은 때로 一進一退가 업지 아니하엿섯지마는 大體로 보아서 親善關係를 維持하고 잇게 되엿다 이와 가티 英國勞働階級이 露西亞勞働階級과 接近하려고 애쓰는 것은 這間에 重大한 意味가 伏在하여 잇다는 것을 看過할 수 업는 바이엿섯다 自國勞働者가 漸次 露國勞働者와 接近하는 것을 보고 英國의 保守黨은 大驚失色하야 再昨一千九百二十四年十月二十九日의 總選擧時에 當하야 모든 資本家의 힘을 一處로 集中하게 하엿섯다 그리하야 英國의 自由黨이 거의 沒落의 悲運을 當하게 되고 保守黨이 決定的勢力을 가지게 되엿다 이러한 때에 잇서서 英國의 勞働階級이 立法的手段에 依하야 그 權利를 伸長하지 못할 것을 깨달엇다 그러고 보니 取할 것은 同盟罷業 밧게는 업게 되엿다 今番의 英國總同盟罷業이 모든 重要한 生産手段을 國有化하야 無産者의 政權을 樹立하기에까지 이르게 될는지는 적이 疑問이다

四

그런데 今番의 機會에 잇서서 더 一層 切實하게 感得되는 것은 「萬國의 勞働者여 團結하라!」는 標語의 精神이다 그것이 지금 各國勞働階級 사이에 顯然히 活動하고 잇는 것을 볼 수 잇스니 英國의 [illegible]

顏內閣成立과 豫想되는 閣員人物

(東京電) 英國著電＝新內閣에 對한 張作霖吳佩孚孫傳芳三勢力의 意見은 四日夜에 이르러 겨우 漸漸 一致되야 顏內閣成立을 보게 되엿는 바 그 人物은 左와 如하다

國務總理顏惠慶▲外交總長施肇基▲財政總長顧維鈞▲農商總長高凌霨(或은 楊文愷)▲海軍總長李鼎新(杜錫珪)▲司法總長張國淦▲內務總長未定(奉天側)▲敎育總長未定(奉天側)▲交通總長張志潭

吳佩孚北上

(東京電) 漢口로부터 外務省에 到着한 公電에 依하면 吳佩孚는 四日夜 漢口로부터 北漢線으로 北上하엿는데 氏는 卽時 入京을 避하고 『호텔』에 宿하리라고 도하며 又는 內閣問題도 決定되엿슴으로 直時 入京하리라고도 觀測되더라

戰時狀態의 英國各地! 混亂의 報가 續到

英國大罷業의 續報

(倫敦五日發) 全國的 大罷業은 旣히 第二日을 經過코저 하는 바 公報는 아니나 英蘭, 蘇格蘭等의 各地에서 混亂의 報가 繼續到達한다 卽 蘇格蘭의 『우러스요』 『렌프류』 『연데이에이런』의 『쓰링섬』 『스럭크온드렌드』 等의 各地에서 市內電車乘合自動車를 襲擊하얏는데 其中에도 『씨스든코른들렌드』에서 約 六千의 群衆이 通行中의 乘合自動車에 投石하야 窓硝子를 破壞함으로 鎭壓하든 警官隊는 携帶하얏든 棍棒으로 辛히 群衆을 驅逐하얏는데 此騷擾로 負傷者 數名과 檢束者 五名을 내엿더라

國際勞組幹事 罷業應援에 狂奔

◇…資金調達에 活動

(암스터담四日發) 國際勞働組合聯合幹事 『섹라운』氏는 四日에 突然히 當地에 來着하야 目下 聯合에 加盟한 各國勞働組合에 對하야 檄文을 보내여 英國罷業決行에 對하야 應援과 資金의 寄附를 엇고자 奔走하는 中이라더라

罷業團側도 政府를 對抗코자

六日朝刊부터 發行

(倫敦五日發) 政府新聞인 『부리텐슈, 가셋트』紙에 對抗하야 罷業勞働者側에서도 六日朝刊부터 非常時의 特別新聞인 『부리텐슈, 워커-』紙를 勞働黨機關紙인 『데일리, 헤럴드』社의 工場에서 發行하얏는데 警官隊는 同工場의 家宅搜査를 行하고 指戰的 記事를 檢閱하얏스나 何等의 煽動的 記事라고 認할 만한 것이 업슴으로 其發行을 許可하얏다더라

罷業의 調停을 英皇帝에게 懇請

◇…各宗敎家等이

(倫敦五日發) 開始以來 四十八時間을 經過한 英國總同盟罷業은 依然히 進行되는 狀態인데 政府는 無條件으로 同盟罷業을 取消키 前에는 交涉을 開始치 안켓다 하야 兩者가 對峙中임으로 何時에 調停이 開始될는지 不明함으로 宗敎家들은 一致하야 『쪼-지』陛下에게 罷業의 調停을 懇請하리라더라

日淸連絡運輸會議

十九日부터 鐵道省에서

(東京電) 第十四回日中連絡運輸會議는 十九日부터 十日間 鐵道省에서 開會될 터인데 鐵道省側으로부터는 種田運輸局長 以下 十三名, 朝鮮總督府에서는 佐藤營業課參事와 其他 一名, 滿鐵側에서는 理事 安藤又三郞氏 以下 五名, 又 中華民國에서는 路政司長 兼 鐵道 [illegible]

三美義塾振興

水原郡城湖面三美義塾은 本是 當地海平尹氏宗中所有財産으로 若三年前에 創設된 바 塾長 尹鮮求氏 外任員諸氏가 窮村地方의 啓發을 爲하야 年齡超過로 普通學校에 入學치 못하는 農村兒童을 救濟코저 同義塾을 設立하고 敎師 金彰圭, 權泰亨 兩氏의 熱誠敎授로 優良한 成績을 收하야 入學生 增加함을 따라 敎室이 極히 狹窄하야 經費의 不贍을 不拘하고 十餘間 敎室을 增築하엿던 바 其建築經費 中 六百餘圓이 他人의 負債뿐 아니라 日用品 外 지도 漸次 困難中에 在함으로 不得已 閉校의 悲境에 陷하엿섯는데 學監 嚴明燮氏와 總務 尹學榮氏는 奮起하야 學父兄會를 開하고 衷曲을 陳述하야 學父兄 及 隣近人士의 多大한 捐助金으로 債務를 脫出하고 其餘額으로 多數한 女子를 募集하야 無料로 敎授하야 오든 中 現今에 至하야는 男女生徒 共 百餘名에 達하며 現 敎師 尹萬榮, 柳基冕, 尹元榮 三氏의 專心敎授와 獻身的 活動으로 附近 各公普校에서도 轉學生이 多하다 하며 漸次로 敎育熱이 暗黑한 鄕村에 振興됨을 따라 附近人士 [illegible]

臨津水組工事中 人夫一時大騷動

原因은 什長의 거짓말 結局警察이 出動鎭撫

坡州郡臨津面水利組合에서 本月 三日 改築工事中 什長과 人夫間에 一時 大騷動이 잇섯다는데 그 內容을 듯건대 工事人夫가 約 一千二百名 中 閑散人夫가 四百名假量인데 工事什長이 閑散人夫 應募時 勞賃은 食價를 除하고 每日 一圓假量은 된다고 際言하얏던 바 事實인즉 食價를 都合하야 不過 一圓內外가 됨으로 閑散人夫等이 憤慨하야 一齊히 什長 等을 毆打하며 村人夫를 毆打하는 等 一時騷動이 잇섯는데 當時 什長 三名은 輕重傷을 當하얏고 이 急報를 接한 坡州警察署에서는 金警部補 外 署員 三名이 急히 現場에 出張하야 一般人夫에게 正當한 理解로 說明한 結果 無事히 解散되고 工事는 依舊히 進行되얏다고 (汶山)

豐川郵便所長被訴

黃海道豐川金融組合理事 尹在禎氏는 豐川郵便所長 赤木磯太郞氏를 相對로 四月二十五日 信用業務妨害 及 名譽毁損罪로 海州地方法院 松禾支廳 檢事分局에 告訴를 提出한 바 其內容을 仄聞한즉 四月十五日 豐川金融組合總會狀況에 對하야 本報啄木鳥欄에 投書한 일이 [illegible]

無料理髮部特設

貧兒를 爲하야

公州本町 文化理髮館主 金錫同氏는 公州의 無依無托한 孤兒와 特히 苦學生들을 爲하야 無料理髮部 一間을 特設하고 每日 午後 三時부터 同 七時까지 無料理髮하야 준다는데 一般人士들은 稱頌不已한다고 (公州)

三德講習復興

咸南安邊郡衛益面鶴巢里 三德講習所는 約 三個年의 歷史로 廢止치 아니치 못할 悲運에 잇섯든 바 當地 靑年 張正濟, 嚴良燮, 李冕廷 諸氏가 必死의 努力을 다하야 去月下旬부터 다시 開學케 하엿슴으로 一般은 諸氏의 熱誠을 感謝한다고 (新高山)

號外押收

無産者新聞 長興署에서

全南長興警察署에서는 無産者新聞號外(메-데)를 全部押收하얏스며 五月一日付新聞도 押收處分을 하엿다더라

海西記者團

委員會開催

黃海道松禾郡豐川金融組合에서 去四月中에 總會를 當地普通學校 內에 開催하고 其餘興으로 該生 四五人과 共히 學校 內에서 迷宕이 노랏다는 事實이 新聞에 記載되얏던 바 此에 其嫌疑로 當地 東亞日報分局記者 咸大勳, 高昇均 兩氏를 當地 駐在所에서 拘引을 하야 一週間이나 拘留하엿다가 結局 松禾警察署에 와서 去三日頃에 放釋되엿다는 데 이 事件에 對한 當局의 處置가 너무 無理함뿐 아니라 同 駐在所에서는 今番뿐이 아니라 數月前에도 右兩記者를 그런 事件으로 多日間 拘引하엿던 일이 잇스며 여러 가지 無理한 行動이 만타 하야 海西記者團에서는 奮起하야 來十日에 執行委員會를 松禾邑에서 開催하고 其對策을 討議할 터이라더라(松禾)

學生을 사뭇 毆打

罪丸을 緊握하고

奉悼안는냐는 質問에 金谷校長이 이와 가티

揚州金谷公立普通學校長 高木某는 去四月二十八日 學生 李敬九를 毆打한 事實이 有한 바 探聞한 바에 依한즉 李敬九 等 學生側에서는 今般 王殿下 昇遐에 對하야 天皇陛下께 아서도 三日間 廢朝도 하시고 京鄕各校에서도 奉悼키 爲하야 望哭 又는 休校하얏다는데 本校에서는 奉悼를 아니하느냐 한즉 校長은 卽時 『나마잇기』라 하고 學生 李敬九의 睪丸을 緊握하며 毆打하야 屈伸을 못하엿다 하며 幾日間 通學도 못함으로 學父兄은 매우 憤慨히 녀긴다고(礪石隅)

女子養蠶講習

殷栗에서 開催

殷栗은 本來 海西에 著名한 蠶業地로 至今 植桑熱이 자못 熾烈하야 農家의 自發的 紡績志願을 보게 되엿스나 恒常 一般人士의 遺憾을 不禁함이 無함이던 바 今番 同郡 農會의 斡旋으로 養蠶講習所를 同郡 鄕校 內에 置하고 去三日에 開學式을 擧行하엿는데 郡守의 訓辭를 爲始하여 金鄕根氏 祝辭가 有한 後 閉式한 바 學生이 二十名에 達하며 三個月 만에 修業한다는데 三個月間 總豫算額이 六百圓에 達하며 各學生에 [illegible]

淸州衡平分社 講習所創設計劃

社員의 所得割讓으로 確實한 財源을 得하야

忠北淸州衡平支社에서는 去月臨時總會를 開催하고 諸般事項을 協議하던 中 社員 趙鳳植氏가 單獨으로 經營하든 乾皮場을 同支社의 經營으로 提供하겟다는 發議가 有함으로 一般會員은 滿場이 歡喜하는 同時 一般會員들도 各其 自己가 營業하는 中에서 牛 一頭를 屠殺할 時는 五十錢과 猪 一頭에는 十錢의 金額으로 計算하야 同支社에 納入하겟다고 決議한 結果 同支社의 每年 總收入이 少不下 一千圓 以上에 達하겟슴으로 此를 基本으로 하야 將次 一大講習所를 設立하기로 可決하엿다는데 此로 因하야 數三年間 아모 當爲가 업시 寂寞하든 淸州衡平社에는 一大曙光이 빗초임은 勿論이요 每年 三四百圓의 純利益이 生하는 乾皮場을 이와 가티 提供한 [illegible]

慶山水組通水式

慶北慶山水利組合에서는 慶山面과 珍良面과 一二區를 分하야 二區인 珍良面은 工事가 完成되얏슴으로 同面 內里洞에서 今月六日에 通水式을 擧行한다고 (慶山)

湖西記者大會延期

忠淸南北道記者大會 第二回總會는 來十五日 公州에서 開催한다 함은 旣報한 바어니와 昌德宮殿下의 御昇遐도 因하야 來六月中旬으로 延期하엿다고(公州)

咸昌機業傳習 移轉防止陳情

慶北咸昌面에서는 五年前부터 機業傳習所를 設置하엿던 바 該郡에서는 諸般經費問題로 尙州邑內에 移轉케 한다 하야 該面民 一同은 지난 四月二十九日에 本道知事에게 陳情書를 提出하엿다고(咸昌)

殷山의 芙蓉劇

兩日間 大盛況

卵山婦女徒辛苦

五圓버리길삼에 男子酒債가 七圓

面長運動猛烈

功勞者表彰

扶安管內의 登記事務停止

◇…八日附로 公布할터 文簿全部가 燒失되야

汶山靑年 貯蓄組合創立

去二日午後

完山仁義團 勞學經營決議

安城農校 諸般施設完備

大好成績

興者受者가 모도다 熱誠

寄付金收納

咸昌基靑討議

成興 [illegible]

德川郡當局者에게

優良面表彰

鈴置次官逝去

博川幼園

新設된

各地의 甘雨

歲加月增하는

元山煙草消費高

元山煙草元賣捌所管內 四月中의 煙草賣上代金은 合計 五萬六千四十三圓八十二錢이고 前月에 比하야 三千五百二十五圓 前年同月에 比하야 七千七百六圓六十二錢이 增加되엿다고(元山)

九割七分五厘

四月中金融界 平穩無變動

地方經濟

本報讀者優待

讀者本位懸賞文藝募集

伽倻山海印寺見學團員募集

平北懸賞男女雄辯大會

元山重要移出品

寸鐵

The Korea Daily News.

Seoul, Korea. Friday, May. 7th, 1926.

A LETTER FROM THE INDIAN CYCLISTS

Peking, 27th April 1926.

The Editor,
Chosun Ilbo,
Seoul,

Dear Sir,

It is with great regret that we have at last left Korea and the kind Koreans who welcomed us in such a splendid way.

We are relating to our Indian compatriots the hospitality, kindness and courtesies shown to us by the Koreans and they look upon them with admiration and appreciation at the same time sympathising in your cause.

Finally, we wish to thank all the Koreans through your esteemed paper for all they did for us during our tour and we assure you that though we have left Korea we shall continue to take greater interest in Korea and the Koreans.

Yours faithfully,
J. P. Bapasola
R. J. Bhumgara

英文欄

印度靑年의 書翰